

* 제시된 문제를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육사는 1904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14대 손으로, 6형제 가운데의 둘째로 태어났다. 육사는 5세 때부터 형제들과 더불어 할아버지에게서 한학(漢學)을 배웠는데, 총명하여 그 수준이 매우 높았다. 그의 할아버지 이중직은 학식(學識)이 뛰어나고 성품이 겸손한 선비였으므로, 이중직이 거처하는 사랑방에는 늘 선비들이 머물러 나라의 현실과 도리를 함께 토론하기를 즐겼다. 육사는 그런 조부 밑에서 성현의 말씀을 배워 가며 자라났다.

(나) 육사가 새로운 학문을 익혀야겠다고 결심하게 된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 그의 나이 16세 되던 1919년, 그는 일본을 이기려면 일본어를 먼저 깨쳐야 한다는 생각에 일본어 교본을 구하러 안동읍으로 나갔다. 책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아는 집에 들렀다가, 눈이 훤히 젖무른 여자 아이를 보았다. 아이가 어렸을 때 다래끼가 났는데, 어머니가 선인장을 찢어 바르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가, 선인장의 독으로 그렇게 된 것이라 했다. 육사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다. 부모가 무지해서 딸을 끔찍한 몰골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다) 그는 일본 생활에서 얻은 생각을 바탕으로, 귀국하자마자 형, 동생과 함께 항일 단체인 정의부(正義府), 군정서(軍政署), 의열단(義烈團)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지금의 달성 공원 입구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조양 회관(朝陽會館)에서 벌이는 문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조양 회관은 당시 대구와 그 인근 지역의 문화 운동의 거점이었다. 여기에서 육사는 자신과 정신적으로 뜻이 통하는 많은 인물들을 만날 수 있었으며, 이들과 힘을 합하여 청년들을 교육하고 민족사상을 고취하는 데 힘썼다.

(라) 그의 대표작인 '청포도', '절정', 그리고 '광

야'와 '꽃' 등에는 독립 운동의 좌절로 인한 울분과 격앙된 감정이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울분을 삭이는 그의 성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는 말이 많은 편이 아니고 항상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편이었으며, 자기를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다. 이러한 시의 경향과 그의 지사적(志士的) 성격은 어릴 때에 받은 한학 교육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마) 육사는 그의 '꽃'에서

북쪽 툰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맹아리가 움직이며

제비 때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조국 광복(光復)이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신념을 끝내 굽히지 않았다. 그는 이 신념을 아름답고 단호하게 예언한 시인이었고, 직접 실천으로 옮기며 산 민족 지사(民族志士)였다. 이러한 그의 생애는 '천고의 뒤에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이다.

(바)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 가는 시절

[정답]

이 마을 전설이 주저리주저리 열리고

먼 데 하늘이 꿈꾸며 알알이 들어와 박혀

하늘 밑 푸른 바다가 가슴을 열고

흰 돛 단 배가 곱게 밀려서 오면

내가 바라는 손님은 고달픈 몸으로

청포를 입고 찾아온다고 했으니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두 손은 흠뻑 적셔도 좋으련

아이야 우리 식탁엔 은쟁반에
하이얀 모시 수건을 마련해 두렴.

1) 글의 중심 내용을 바르게 정리한 것은?

- ① (가) - 육사의 집안은 가난하였지만 누구보다도 애국심만은 강하였다.
- ② (나) - 우리 민족의 현실을 깨닫고 육사는 더욱 더 우리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다.
- ③ (다) - 육사는 청년 계몽과 문화 운동을 통해 독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 ④ (라) - 육사가 여러 시를 발표한 것으로 보아 문학기적 소양이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 ⑤ (마) - 우리가 육사를 민족지사로만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2) 이와 같은 글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개인의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시를 인용하여 육사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실존 인물의 위대한 삶에서 교훈과 감동을 얻으며, 일화를 통해 육사의 성격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문학 작품에 관련된 일화와 현실에서 소재를 취해 작가의 상상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다.
- ④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생각이 잘 반영되어 있으며, 일정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 ⑤ 육사의 지사와 시인으로서의 면모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일상에서 얻은 지혜, 깨달음을 고백하는 글이다.

3) 이 글을 읽고 토의할 만한 주제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승현 : 육사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모습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많은 교훈을 준다고 봐.

- ② 지용 : 그의 시 세계에 지사로서의 모습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알아봐야겠어.
- ③ 대성 : 한용운, 윤동주와 이육사의 생애를 비교하여 보자.
- ④ 승리 : 이 육사의 성장 배경이 그의 성품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 ⑤ 영배 : 육사는 민족 지사로서의 모습이 더 강하고 독립을 위하여 헌신하였으니까 시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반대야. 의열단에 가입한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일까?

4) (바)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성 : 역사적 상황을 모르고 이 시를 읽으면 내용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 ② 청용 : 시대적 배경이 일제 강점기라는 것을 알고 감상하면 운명을 걸고 현실과 대결하려는 의지를 느낄 수 있어.
- ③ 정수 : 이 시의 화자는 좌절된 독립 운동에 대한 열망과 외로움을 표현하고 있어.
- ④ 주영 : ‘청포도’, ‘하늘’, ‘푸른 바다’ 등 유난히 밝은 색으로 표현된 것으로 보아, 육사가 바라던 세상이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
- ⑤ 두리 : 은쟁반이나 하얀 모시 수건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아 시의 화자는 경건한 자세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어.

5) 글 (마)에 나타난 그의 시 ‘꽃’에서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시어 또는 시 구절을 두 가지 찾아 그대로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궁화가 국화로서 시비(是非)의 대상에 오르내린 일도 있었다. 무궁화가 북부의 추운 지방에서는 얼어 죽어 ㉠한반도 전 지역에서 재배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꽃도 시원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새로 국화를 제정해 보자는 것이었다. 무궁화는 나무의 모양이 꺾적꺾적하여 때를 벗지 못하였다는 등, 잎도 보

잘 것 없고, 봄철에 싹이 너무 늦게 튼다는 둥, 벌레가 많이 핀다는 둥, 꽃이 겨우 하루밖에 못 간다는 둥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

(나) 우리 본래의 무궁화는 홑꽃인데, 날마다 새로 피고 그 날로 지고 만다. 그러므로 아침에 보는 꽃은, 몇만 송이가 피든지 모두 그 날 새벽에 새로 핀 꽃들이다. 기나긴 개화 기간 동안 아침마다 새 꽃이 피고, 저녁에는 시들어서 떨어진다. 피고 지고, ㉠지고 피는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된다. 이를 그대로 무궁화이다.

(다) 사람의 70 평생도 보기에 따라서는 하루살이와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의 짧은 일생이라고 하더라도, 무슨 형태로든지 인간의 역사에 자신의 지혜와 착한 생각을 나름대로 꽃피워 이어 간다. 유구한 인류의 역사도 따지고 보면 짧은 인생의 연속(連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날마다 피고 지는 한 송이 한 송이의 무궁화를 덧없이 짧은 인간의 생명에 비한다면,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꾸준하게 계속되는 긴 화기(花期)는 즐기차게 이어져 융성하는 인류의 역사를 상징하는 듯하다.

(라) 이른 새벽에 활짝 피고, 저녁에 봉오리처럼
도로 오므라져 조촐하게 떨어지는 무궁화는 다른 꽃
들처럼 그 뒤가 어지럽지 않다. 이것도 무궁화의 큰
특색의 하나이다. 저녁에는 태양이 서산으로 지지만,
이튿날 아침에는 장엄한 새 태양으로 동녘 하늘에 솟
아오른다. 무궁화는 이러한 태양과 일맥상통하는 특
유한 꽃이다.

(마) 무궁화는 씨나 꺾꽂이로도, 또 포기나누기로도 쉽게 번식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나무의 크기가 정원수로 알맞은 중형이어서 어느 곳에 심어도 보기 좋고, 또 토양 선택이 까다롭지 않아서 어디서나 잘 자란다. 참으로 민중과 친근한 꽃이라고 하겠다. 꽃과 씨와 꺾질과 뿌리는 모두 소중한 의약재로 쓰이며, 꽃과 잎은 차로, 그리고 꺾질의 섬유는 고급 종이의 재료로 쓰인다. 무궁화는 백방으로 실속 있는 꽃나무라 하겠다.

6) 이와 같은 종류의 글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① 객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②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 ③ 역사적인 사건의 전개를 알 수 있다.
- ④ 상대방을 설득하는 목적의 글이다.
- ⑤ 작가의 논리적인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7) (가)~(마) 중 국화 시비론 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락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8) (가)의 ㉠에 대한 반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 단락은?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9) 이 글을 읽고 난 후, 택연이는 다양한 매체로 무궁화에 대하여 더 공부하려고 한다. 이 때 잘못된 것은?

- ① 무궁화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검색한다.
- ② 무궁화의 사진이 담긴 백과사전을 찾아본다.
- ③ 무궁화의 꽃말을 알아보기 위해 속담 사전을 찾아본다.
- ④ 무궁화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께 여쭙어 본다.
- ⑤ 세계 각국의 국화를 인터넷으로 조사해 본다.

10) 다음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보기>

1. (나)의 밑줄 친 ㉠으로 인해 비유된 것을 (다)에서 찾아 본문대로 쓰시오.

2. (라)에서 무궁화의 특색을 찾아 보기의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① 두 가지를 찾아 쓸 것

- ② 본문대로 각각 4어절로 쓸 것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독자적인 시 세계를 펼쳐며 활동한 중요한 시인으로 한용운과 김소월이 있었다. 한용운은 시집 ‘님의 침묵’에서, 임을 상실한 슬픔을 기다림의 의지로 승화시켜 독특한 (㉠)의 세계를 개척하였다. 김소월은 시집 ‘진달래꽃’에서 민요적 율격에 우리 민족 고유의 서정을 잘 담아 내어 서정시의 기틀을 다져 놓았다.

(나) 새로운 시가 양식인 신체시가 나타났다. 최남선의 ‘(㉡)’가 그 대표적인 작품인데, 새 시대와 문명을 향한 포부를 노래했다. 고전 시가 양식이 현실 비판과 애국 사상을 주요 내용으로 삼은 것에 비해, 신체시는 계몽 사상을 담고자 했으며, 전통 시가 양식과 근대시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

(다) 여러 신문과 문예지가 발간됨에 따라 한국 현대 시문학은 크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백조, 폐허와 같은 동인지를 무대로 하여 주요한, 홍사용 등과 같은 시인은 허무, 병, 꿈, 눈물 등의 어두운 이미지를 담은 시를 써내었다.

(라) 이 무렵에는 전쟁시와 애국시가 주류를 이루었다. 조지훈의 시집 ‘역사 앞에서’, 유치환의 ‘보병과 더불어’는 종군 체험이 낳은 대표적인 시집이다. 한편으로는 ‘(㉢)’ 동인이 결성되면서 박인환, 김수영, 전봉건 등을 중심으로 하여 모더니즘이 전개되었다. 박인환의 ‘목마와 숙녀’는 전후의 허무감을 잘 드러내었다.

(마) 이 시기의 시는 곧 모더니즘 시라고 할 정도로 많은 작품들이 발표되었다. 김광균은 시집 ‘와사동’에서 대상을 주로 시각적 이미지와 감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즘의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상은 ‘오감도’ 연작시에서처럼 내면 세계를 초현실주의 기법을 사용하여 파헤치는 시를 썼다. (㉣)은 서구 시의 시각과 표현 방식을 수용하는 데서 출발하였으나, 나중에 가서는 카톨릭주의, 동양적 세계, 자연시 쪽으로 접어든다.

11) 위의 내용을 시대 순으로 옳게 배열한 것은?

- ① (나)-(가)-(다)-(라)-(마)
- ② (나)-(다)-(가)-(마)-(라)

- ③ (나)-(마)-(다)-(가)-(라)
- ④ (나)-(가)-(마)-(다)-(라)
- ⑤ (나)-(마)-(가)-(다)-(라)

12) 시대적 순서로 볼 때 <보기>의 단락이 들어가야 할 곳은?

<보기>

윤동주는 ‘서시’, ‘쉽게 씌여진 시’ 등과 같은 작품을 통해 부끄러움을 강조하면서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성찰을 보여 주었다. ‘광야’, ‘절정’ 등의 시를 통해 조국 독립에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이육사는 이상화, 윤동주와 함께 (㉠)의 범주를 형성하였다. 광복 직후에는 박목월, (㉡), 조지훈의 합동시집 (㉢), 윤동주의 유고 시집 (㉣)이/가 간행되었다.

- ① (가)의 뒤 ② (나)의 뒤 ③ (다)의 뒤
- ④ (라)의 뒤 ⑤ (마)의 뒤

13) 위 12번 문제 <보기>에서 괄호안의 ㉠~㉣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14) (나)가 속한 시기의 시가문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서양 음악에 가사를 적는 형식의 창가가 발표되었다.
- ② 애국, 개화사상, 현실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 ③ 고전 시가 양식과 근대시 양식이 공존하였다.
- ④ 시조부흥운동이 전개되었다.
- ⑤ 수백 편의 개화기 작품들이 신문을 통해 발표되었다.

15) (가)~(마) 중 ㉠~㉣의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16) 시대적 상황으로 보아 <보기>의 내용은 어느 단락 앞에 와야 하는가?

<보기>

한결 더 성숙한 표현 방법과 다양한 정신세계를 보여 주게 된다. ‘시문학’이라는 잡지를 무대로 하여 박용철, 김영랑은 순수시를 내세우면서 언어와 리듬에 큰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이며 일상적인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해 내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17) <보기>의 내용과 같은 시기의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보기>

- (1) 생명파로 불리는 서정주와 유치환은 주로 인간과 생명의 탐구에 주력했다. 서정주는 ‘화사’와 ‘자화상’ 등의 시에서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면서 주로 본능과 무의식을 탐구했다.
(2) 경향시가 등장한다. 경향시는 후에 선동 시로 빠지는 했으나, 시인 의식을 적극적인 정치 투쟁의지에까지 연결시켜 시의 기능을 확대했다.

- ① (1)-(다), (2)-(가) ② (1)-(라), (2)-(다)
③ (1)-(마), (2)-(가) ④ (1)-(다), (2)-(마)
⑤ (1)-(마), (2)-(라)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이 시기의 대부분 작품은 을사조약에서 경술국치 직후 사이에 발표되었다. 이인직의 ‘혈의 누’, 이해조의 ‘자유종’ 등의 신소설은 개화 사상, 교육 입국 등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소설 양식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켰다.

(나) 이 시기의 소설은 전지 소설과 전후 소설로 나누어진다. 전지 소설은 보고 문학의 형식을 통해 적개심 표출, 반공주의 등의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나, 황순원의 ‘학’은 이념보다 우정을 강조하였다. 전후 소설에는 1954년 북한의 토지 개혁 시기를 배경으로 젊은 지주의 위기와 사랑을 다룬 황순원의 ‘카

인의 후예’, 이념 대립보다는 인간과 사랑이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하는 선우휘의 ‘불꽃’ 등이 있으며, 이범선의 ‘오발탄’처럼 전쟁이 끝난 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 병적인 심리 상태와 행동을 보이는 한국인의 모습을 그려 낸 작품도 있다. 이 시기의 문제작들이 그려 낸 것은 가난, 부조리, 병, 불신 등이었다.

(다) 이 시기의 소설은 리얼리즘 경향과 모더니즘 경향이 비슷한 힘으로 양분된다. 이기영, 김남천 등과 같은 작가는 두 차례에 걸친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당시의 비참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려 내고자 했다. 모더니즘 소설에는 인간 내면의 분열을 그리는데 치중한 작품들이 있다. 또한 이 시기 소설이 보여준 또 하나의 큰 특징으로 다양한 소설 유형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라) 이 시기에는 가난을 소재로 한 소설들이 많이 창작되었다. 이러한 작품에는 일제 강점 아래서의 한국인의 비참한 삶을 그리거나, 농민의 굶주린 모습을 그린 작품들이 있다. 이 시기 전반기는 가난하고 억압받는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 후반기는 급진적 태도로 억압적 현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작품이 많이 나왔다.

(마) 광복 직후 소설에는 일제의 포악함과 당시 한국인의 참혹한 실상을 드러낸 작품, 채만식의 ‘민족의 죄인’처럼 일제 강점기 때 자신의 친일 행위를 비판한 작품, 염상섭의 ‘효풍’ 등과 같이 38선이 그어진 현실의 불안감과 단절감을 표현한 작품 등이 있었다.

18) 위의 글을 시대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가) - (다) - (나) - (라) - (마)
② (가) - (다) - (라) - (마) - (나)
③ (가) - (라) - (다) - (나) - (마)
④ (가) - (라) - (다) - (마) - (나)
⑤ (가) - (마) - (나) - (다) - (라)

19) 다음 중 (라)시기에 쓰인 작품이 아닌 것을 고르면?

- ① 도시인의 비참한 삶을 그리는 데 힘쓴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② 당시 농민의 굶주린 모습을 그린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
- ③ 일제 강점 아래에서 한국인의 비참한 삶을 그린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 ④ 도시 노동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그리는 데 주력한 주요섭의 ‘인력거꾼’
- ⑤ 당시 한국인의 비참한 삶을 지식인의 입장에서 그린 염상섭의 ‘만세전’

20) (가) 시기에 발표된 소설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면?

- ① 역사의식을 반영한 문학 작품이 많이 나온 시기이다.
- ②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소설 양식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시켰다.
- ③ 소설을 적극적인 정치 투쟁 의지에까지 연결시켜 소설의 기능을 확대했다.
- ④ 다양한 문학 갈래가 나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⑤ 전통 문학을 계승 발전시켜 고전 소설을 다시 살리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1) 다음 글은 (가)~(마) 중 어느 글 다음에 들어갈 야 시대적으로 알맞은가?

<보기>

황순원의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참전했던 젊은 이들의 파탄과 방황을 감동적으로 그려 내었고, ‘광장’은 남과 북의 갈등, 이념의 대립을 날카롭게 그리면서 남북 모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이 시기 전반기에 나온 전광용의 ‘꺼삐딴 리’,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 등은 한국인의 운명에 검은 그림자를 던진 전쟁의 의미를 묻고 있으며, 개인의 파괴와 몰락을 그렸다. 이 시기 후반, 김승옥의 ‘서울 1964년 겨울’, 이청준의 ‘병신과 머저리’는 새로운 감성과 시각으로 한국인의 삶을 그렸다.

- ① (가)의 다음 ② (나)의 다음 ③ (다)의 다음
- ④ (라)의 다음 ⑤ (마)의 다음

22) 글 (다)에 나타난 이 시기 소설의 다양한 유형을 서술하고 유형별로 대표 작품과 작가를 서술하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림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다시 더 한 번……

저 산(山)에도 까마귀, 들에 까마귀,
서산(西山)에는 해 진다고
지저칩니다.

앞강물 뒷강물 흐르는 물은
어서 따라오라고 따라가자고
흘러도 연달아 흐릅디다려.

(나)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中立)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다)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 때에 내 말이 ‘잊었노라.’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아서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와 아니 잊고
먼 훗날 그 때에 ‘잊었노라.’

(라)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꽃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아아 누구던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마) ㉠봄은
남해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

너그럽고
빛나는
봄의 그 눈짓은,
㉢제주에서 두만까지

우리가 디딘
㉢아름다운 논밭에서 움튼다.

겨울은,
바다와 대륙 밖에서
그 매운 눈보라 몰고 왔지만
이제 올
너그러운 봄은, ㉣삼천리 마을마다
우리들 가슴속에서
움트리라.

움터서,
㉤강산을 덮은 그 미움의 쇠붙이들
눈 녹이듯 흐물흐물
녹여 버리겠지.

23) <보기>의 내용과 관계 깊은 것을 두 가지 고르면?

<보기>

부조리한 현실을 비판하고 고발하는 현실 참여시가 많이 창작되었으며, 대표 시인에는 김수영, 신동엽, 고은, 김지하 등이 있다.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4) (가)~(마) 중 1920년대 시이며 그리움의 정서가 담긴 시 두 가지를 고르면?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5) (라)에서 비유하는 대상이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6) 다음 상징적 의미가 다른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7) (가)시의 특징으로 보기 힘든 것을 두 가지 고르면?

- ① 민요적 ② 애상적 ③ 여성적
④ 낭만적 ⑤ 의지적

28) (라)의 ‘소리 없는 아우성’ 과 같은 표현이 쓰인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①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 지금은 가야할 때
②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 점 부끄럼 없기를 / 잎 새에 이는 바람에도
③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④ 산에는 꽃 피네 / 꽃이 피네 / 갈 봄 여름 없이 / 꽃이 피네.
⑤ 아아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나다.

29) <보기>의 작품과 같은 시기의 것은?

<보기>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테요.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30) 다음 중, 접받침이 들어간 말을 잘못 발음한 것은?

- ① 값[갑] ② 넓다[넌따] ③ 밝다[밥따]
④ 읊다[을따] ⑤ 녀[넹]

31) 다음 중, 발음할 때에 인접된 두 자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양쪽 모두 바뀌는 것은?

- ① 섭리 ② 윤리 ③ 신라
④ 늪는 ⑤ 심령

32) 다음의 밑줄 친 낱말 중, 탈락한 음운이 다른 하나는?

- ① 이 옷이 더 나아 보인다.
② 바람이 부니 쓸쓸해 보이는구나.
③ 민속촌에서 질화로와 부삽을 보았어.
④ 짐이 먼 사람은 빨리 집으로 가거라.
⑤ 산 속의 우짚는 새소리를 들어 보아라.

33) ㉠과 ㉡을 설명할 수 있는 음운의 변동 현상과의 연결이 바른 것은?

- ㉠ ‘피붙이’ 는 [피부치]로 소리 난다.
㉡ ‘깁는’ 은 ‘깁는’ 으로 소리 난다.
㉢ ‘파랑게’ 는 ‘파라게’ 로 소리 난다.

- | | ㉠ | ㉡ | ㉢ |
|----------|--------|--------|--------|
| ① 음운의 탈락 | 음운의 축약 | 자음 동화 | 음운의 탈락 |
| ② 자음 동화 | 구개음화 | 음운의 축약 | 자음 동화 |
| ③ 구개음화 | 자음 동화 | 음운의 탈락 | 자음 동화 |
| ④ 음운의 탈락 | 구개음화 | 자음 동화 | 자음 동화 |
| ⑤ 자음 동화 | 음운의 축약 | 구개음화 | 자음 동화 |

34) 다음 글을 읽고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이 바르지 못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가족들과 함께 전라도 남원에 있는 ㉠광한루[광할루]에 다녀왔다. 가족들과 다녀왔던 ㉡속리산[송니산]도 좋았고, ㉢백록담[백노담]도 좋았고, ㉣대관령[대괄령] 목장도 좋았지만, 그 곳에서 춘향을 생각하며 재밌게 보냈다. 광한루 ㉤앞마당[압마당]이 넓었다. 광한루에 앉아서 이 도령과 춘향이가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5) <보기>의 낱말들을 발음했을 때 음운의 변동 중 아래와 같은 변동이 일어나는 낱말을 골라 답지에 쓰시오.

<보기>

왕릉, 맞춰, 다달이, 굽는, 국화, 왕십리, 빨갛고, 밭이, 급류, 반닫이, 협력, 그어, 마소, 만이

- (1) 음운 축약 :
- (2) 구개 음화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며칠 후 경호네와 형제 슈퍼의 김 반장이 휴전 협정을 맺었다는 소문이 동네 안에 좌악 퍼졌다. 아닌게아니라, 두 집의 물건 값이 같아졌고 저울 눈금도 서로 확실히 하고 있어서, 이제는 어느 집으로 가든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밖에 없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여자들은 내심 김이 빠졌다. 그래도 고흥택은 나이가 많으니 솔직해도 흠이 되지 않는다.

(나) 남은 일은 싱싱 청과물이 어떻게 당하는지 구경하는 것뿐이었다. 고흥택 말대로 고래가 ㉠세 마리로 불어났으니 먹을 게 더 많아지리라는 기대도 조금 있었다. 아닌게 아니라, 주된 전략은 바로 가격 인하였다. 싱싱 청과물에서 취급하는 품목에 한해서만 두 가게가 모두 대폭적으로 가격을 내리기로 하였다는 것이었다.

(다) "오죽하면 이 동네까지 와서 전과상을 벌일라구. 같이 먹고 살아야지. 안 그래?"

시내 엄마가 한 말을 흉내 내는 우리 정육점 안주인 때문에 여자들은 모두 깔깔 웃어 댔다. 시내 엄마는 셀쫄한 얼굴로 웃는 둥 마는 둥 하는 중이었다. 64번지 새택은 그러나 이제부터의 일이 더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모양이었다.

(라) 시내 엄마의 발언 내용이 잠깐 사이에 극과극으로 달라진 것을 모를 리 없는 여자들은 모두 입을 조심하였다. 선불리 잘못 말하였다간 이웃 사이에 금만 갈 뿐이다.

"우리야 뭐 곳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야지."

소라 엄마의 심드렁한 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들 배부르는 재미 말이제?"

하고 고흥택이 예의 그 옛말풀이를 들고 나왔다.

"김 반장도 끝을 보는 성격인데 심상찮아."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살다 보니 자연 악만 남았다는 김 반장의 처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이웃인 지물포 여자의 근심어린 걱정도 나왔다.

"왜들 이렇게 장삿길로만 빠지는지 몰라."

우리 정육점 여자의 우문이었다.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렇지요."

새택이 즉각 현명한 답을 내놓았다.

36) 이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와 내적 갈등으로만 전개된다.
- ② 물질만능주의의 사회 풍조를 그리고자 했다.
- ③ 이 소설의 갈등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분쟁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소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 ⑤ 원미동에 있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기록한 글이다.

37) <보기>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로 쓰시오.

<보기>

1. ㉠과 ㉡은 무엇을 비유하는지 쓰시오.
2. (다)에서 이 소설의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찾아 3어절로 쓰시오.

38) (1) 위 소설의 제목인 '원미동 사람들'에서 원미동 의 뜻을 쓰시오.

(2) 이 소설의 시대적 배경을 10음절 이내로 쓰시오.

▶ 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0-buhaza.com>)

[정답]

- 1) ③
- 2) ②
- 3) ⑤
- 4) ③
- 5) 꽃맹아리, 저버리지 못할 약속
- 6) ②
- 7) ①
- 8) ⑤
- 9) ③
- 10) (1) 인류의 역사 (2) 태양과 일맥상통하는 특유한 꽃이다. 무궁화는 뒤가 어지럽지 않다.
- 11) ②
- 12) ⑤
- 13) ㉔저항시 ㉕박두진 ㉖청록집 ㉗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 14) ④
- 15) ㉙사상시 ㉚해에게서 소년에게 ㉛후반기 ㉜정지용
- 16) ⑤
- 17) ③
- 18) ④

- 19) ①
- 20) ②
- 21) ②
- 22) 역사 소설 - 현진건의 '무영탑', 가족사 소설 - 염상섭의 '삼대', 농촌 소설 - 심훈의 '상록수'
- 23) ②⑤
- 24) ①③
- 25) ③
- 26) ①
- 27) ④⑤
- 28) ①⑤
- 29) ④
- 30) ④
- 31) ①
- 32) ①
- 33) ③
- 34) ③⑤
- 35) (1) 음운 축약 : 맞춰, 국화, 빨강고 (2) 구개음화 : 밭이, 반닫이, 만이
- 36) ④
- 37) 1. ㉙형제 슈퍼, 김포 슈퍼, 싱싱 청과물 ㉚ 원미동 사람들 2. 같이 먹고 살아야지

38) (1) 멀고 아름다운 동네 (2) 1980년대 (3) 먹고 살기 힘든 도시민의 삶이 사실적으로 느껴졌다., 작은 이익에 갈등하는 원미동 사람들의 모습이 안타까웠다.